

#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연구

최 선 일\*

## 〈목 차〉

- I. 머리말
- II.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과 복장물
- III. 목조보살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추론
- IV. 조각승 하천의 활동과 그 계보 및 불상 양식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휴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좌상 가운데 목조협시보살을 제작한 하천 스님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보살상은 발견된 후령통을 싼 황초복자를 묶은 종이에 증명(證明), 수정(修淨)과 경전 내에 봉곡사(鳳谷寺)라는 목서가 발견되었다. 현재 김천 봉곡사에 소장된 현판(懸板)중에는 1730년 4월에 영산전에 봉안할 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을 조각승[造工比丘] 하천(夏天), 석준(碩俊) 등이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현재 대휴사에 남아 있는 목조보살좌상은 1730년에 조각승 하천이 제작한 삼존불 가운데 하나로, 손의 위치로 보아 좌협시보살인 미륵보살임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을 제작한 조각승 하천(夏天: -1703-1730-)은 17세기 후반에 태어나 수화승 색난과 1703년에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1705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보현동자, 1707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 1709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그는 1720년에 수화승 일기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하고, 수화승으로 1722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능인전 삼존불상을 개금했으며, 1724년에 장흥 보림사 나한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상을 증수하였다. 또한 하천은 수화승으로 1726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북대암 목조보살좌상(서울 지장암 봉안)과 1726년에 고흥 금탑사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 그 후 하천은 1730년에 김천 봉곡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과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여래좌상을 제작하고,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을 개금·증수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의 활동 시기는 1703년부터 1730년까지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76.0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접목식 중형보살상이다. 보살상은 상반신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보관 안쪽에는 정수리 부분에 두 가닥으로 묶은 작고 단순한 형태의 보계(寶髻)가 있고, 양 어깨에는 등글게 말린 보발(寶髮)이 세 가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타원형 얼굴에 살짝 뜬 눈은 거의 일자형으로, 눈꼬리가 위로 약간 올라갔고, 삼각형의 코는 콧등이 평평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보살상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보살상의 얼굴 생김새를 갖추고 있지만,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기년명 보살상보다 머리에 비해 어깨가 좁고, 하반신이 높게 제작되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중앙에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끝단이 반원형으로 길게 늘어지고, 좌우로 대의자락이 두 가닥 접혀서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왼쪽 소매 자락은 연판형으로 무릎을 완전히 덮고 있다. 이와 같은 하반신에 걸친 대의 처리는 17세기 후반에 호남에서 활동한 조각승 색난이 제작한 목조보살좌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조각승 하천은 색난(色難), 일기(一機)→하천(夏天), 필영(弼英), 석준(碩俊)→성찬(成澗), 종혜(宗慧), 평척(宏陟) 등으로 이어지는 18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계보에 속하는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조선후기(朝鮮後期), 조각승(彫刻僧), 하천(夏天), 발원문(發願文), 대휴사(大休寺)

## I. 머리말

조선후기(1600~1910)에 조성된 불상들은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사찰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불상의 개금과 시도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장을 조사하다보면,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적힌 사찰과 현재 봉안된 사찰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상의 이운(移運) 목적이나 과정 등을 적힌 문헌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운 당시의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산 대휴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2013년 10월에 사찰 측에서 동북이불교미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보살상을 조사하면서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복장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sup>1)</sup> 목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비단에 쌓인 후령통, 불교 경전, 다라니 등이며,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제작 시기와 조성 사찰 등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후령통을 쌓은 황초복자를 묶은 종이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한 수정(修淨)스님이 적혀 있고, 경전 가운데 봉곡사(鳳谷寺)라고 적힌 목서가 발견되어 원 봉안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천 봉곡사에 소장된 현판(懸板) 가운데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1730년에 조각승 하천이 석가삼존상과 나한상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조각승 하천(夏天 : -1703-1730-)의 활동은 수화승 색난과 1703년에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불(木造三佛)·四菩薩像(四菩薩像) 중 석가와 관음보살좌상을, 1705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보현동자상을, 1707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을, 1709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하천은 수화승으로 1726년에 고흥 금탑사 북대암 목조보살좌상(서울 지장암 봉안)과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1730년에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과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18세기 전반에 전국 사찰 전각에 봉안된 불상의 개금이나 중수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두 건의 불상에 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전 논문들이 개

1) 김천 대휴사 연혁과 성보문화재에 관한 조연을 해 주신 수정 총무스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2) 김미경, 『八公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불교미술사학』3, 불교미술사학회, 2005, 269~291쪽;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별 불상에 관한 접근만 이루어져 조각승 하천이 만든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나 스승인 색난이 만든 불상과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의 양식적 특징과 복장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물을 중심으로 제작 시기와 조성 사찰을 밝혀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조각승 하천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양식적인 특징이나 변천과정을 밝혀 색난 계보 조각승이 만든 불상의 시기적인 특징을 밝혀보겠다. 그 후 전국에 산재한 색난 계보 조각승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가운데 조각승 하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불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과 복장물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384번지에 위치한 大休寺(주지 제철)는 재단법인 선학원에 속하는 사찰이다(도 1).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 내에는 수미단 위에 목조삼존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도 2). 삼존불 가운데 본존과 지장보살좌상은 최근에 제작되었지만, 향우측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보살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 1. 대웅전, 김천 대휴사



도 2. 목조삼존불좌상,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76.0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접목식 중형보살상이다(도 3). 보살상의 조성 시에 만든 나무로 된 보관(寶冠)에 근래에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 및 冠帶 등을 금속판으로 만들어 끼워 장식하였다. 보관 안쪽에는 정수리 부분에 두 가닥으로 묶은 작고 단순한 형태의 보계(寶髻)가 있고,

2006, 120~125쪽 ; 오진희, 『조각승(彫刻僧) 하천(夏天)의 불상조각(佛像彫刻) 연구(研究)』, 『장작미술사』3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207~230쪽.

양 어깨에는 둥글게 말린 寶髮이 세 가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살상은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신체에서 보관과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 정도이다. 이러한 신체 비례는 17세기 전·중반에 제작된 보살상에 비하여 신체보다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타원형 얼굴에 반쯤 뜬 눈은 거의 일자형으로,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콧등이 평평한 코는 삼각형을 이루며, 입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다(도 4). 이 보살상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보살상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갖추고 있지만,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기년명 보살상보다 머리에 비하여 어깨가 좁고, 하반신이 높게 제작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은 석가여래를 제외하고, 따로 제작한 손을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이 보살상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수인(手印)은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손바닥을 위로하여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바닥을 위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연화가지를 들고 있다(도 5).



도 3. 목조보살좌상, 높이 76.0cm 도 4. 목조보살좌상 상반신 도 5. 목조보살좌상 측면  
김천 대휴사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중앙에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끝단이 반원형으로 길게 늘어지고, 좌우로 대의자락이 두 가닥 접혀서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왼쪽 소매 자락이 연판형으로 무릎을 완전히 덮고 있다(도 6). 이와 같은 하반신에 걸친 대의 처리는 17세기 후반에 호남에서 활동한 조각승 색난이 1709년에 제작한 목조보살좌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도 7). 보살상 뒷면에는 목 주위에 대의(大衣)를 두르고,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도 6. 목조보살좌상 하반신



도 7. 색난, 목조보살좌상, 1709년  
고흥 송광암

### Ⅲ. 목조보살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추론

보살상 바닥 면에는 사각형의 복장구가 뚫려 있는데, 복장 뚜껑 위에 근래에 쓴 주서타라니(朱書陀羅尼)가 붙어 있었다. 목조보살좌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조성 시에 넣은 황초복자에 쓴 후령통, 불교경전, 다라니 등이며, 보살상이 제작된 시기와 작가를 밝힐 수 있는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은 발견되지 않았다(도 8).

목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황초복자에 증명 수정 봉(證明 修淨 封)이라 붉은 글씨로 적혀 있고(도 9), 보살상에서 발견된 분철된 『妙法蓮華經』에 봉곡사(鳳谷寺)에서 납입한 기록이 남아있다(도 10).<sup>3)</sup> 이러한 목서를 바탕으로 김천 봉

3) 덕순스님이 봉곡사로 찾아가서 봉찬스님을 뵈고 “스님께서 은적암 부처님과 산림을 다 모시고 가셨으니, 은적암에 부처님이 안계시니 부처님을 모셔야겠습니다.”라고 건의하여 관세음보살님을 내어주셔서 모셔오게 되었다. 비단으로 짠 부처님을 가마에 모시고 지례면 속수를 지나게 오게 되었다. 김석환(상부리에 거주 : 지례면장을 역임한 문길근씨 매제)씨가 농을 하면서 무겁다고 불평을 하자 김석환의 발이 땅에 붙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며 진전 궁궁하였다. 덕순스님께서 “가마를 놓고 개울에 가서 목욕하고 오시오”하셨다. 스님은 길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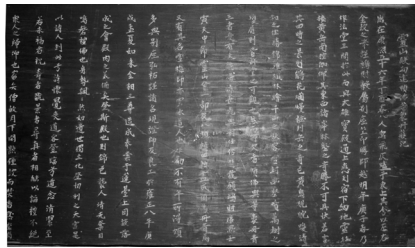
도 8. 목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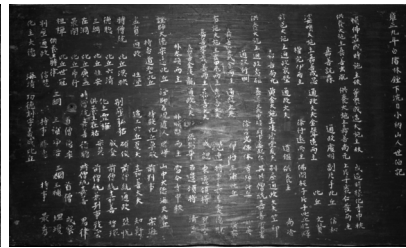
도 9. 황초복자에 쌓인 후령통



도 10. 묘법연화경 내 목서 [봉곡사]



도 11-1. 현판 [영산전장건탱불등상단확기] 세부



도 11-2. 현판 [영산전장건탱불등상단확기] 세부

곡사에 남아있는 문헌기록 을 비교해 본 결과, 수정스님이 증명(證明)으로 참여한 [靈山殿翔建幀佛等象丹牘記]가 남아있어 조성시기와 조각승을 추정해 볼 수 있다(도 11).

靈山殿翔建幀佛等象丹牘記

歲在康熙五十六年丁酉春八人忽飛灰爐于東上其舍以左右  
金鼓之學謹鳩財穀屬別座竺印勝師越明年庚子春乃  
作法堂三間於此而與大雄寶殿通上應列宿下納地靈北  
接黃岳南控伽倻其東西諸峯林壑之奇勝不可具狀若言  
其四時之景則鶉花爛熳粧列岳之奇色黃鳥睨院喚清  
和之佳勝錦堆楓林繪千山之秋容雪封幽壑噴萬樹之

외딴집에 가서 초와 향과 다기를 차려놓고 절을 하시면서 “증생이 어리석어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마꾼 두 분에게도 절을 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목탁을 치며 가마와 김석환과 두 분의 주위를 돌며 염불을 하자 그제서야 발이 떨어져 무사히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덕순스님을 모셨던 성우스님이 생생한 기억으로 회고하였다(김천 대휴사 수정 총무스님 제공).

瓊屑則皆此堂之可觀也然而所欠者幀佛與等象丹青三者受有大德海清長老與別任信楚發願鳩財康熙壬寅天中節靈山會一部及八相幀四軸畫成因為丹青焉又有其名雪梅師亦雲水道人也任勸不有年所得額多與別座弘祐謹請名現證師及良工於**雍正八年庚戌孟夏**如來金相三尊造成奉案于蓮臺上因設落成之會殿內之美備矣登斯殿也則錦…色襲人清光奪目鳴磬禮佛也身勢飄然如遺世獨立化登切利之天宮是以詩人到此方詩懷覺爽道客登臨方道念清潔至若永福者祝壽者翫景者尋真者相繼以詔禮不絕衆人之歸仰也審矣僧故月下閑點鐘鼓而焚香默坐消遣世憲此則禪家之勝槩也且寺中經營之役佳則佳矣而清長老梅道人畫造之功亦可休哉後之人與二師共志者嗣以重修則庶斯殿佛之不毀也時  
雍正九年白豬林鍾下浣日小衲山人世伯記

|              |                         |             |
|--------------|-------------------------|-------------|
| 幀佛畫成時施主秩     | 等象成造大施主秩                | 成造時椽化寺中秩    |
| 供養大施主 嘉善 玄胤  | 供養大施主 嘉善 尙元             | 上片手 裴仁發 兩主  |
| 嘉善 說森        | 通政 處明                   | 副片手 比丘 信和   |
| 婆幀大施主 嘉善 戒忍  | 通政大夫 金聲遠 兩主             | 比丘 文贊       |
| 權完伊 兩主       | 徐行遠 兩主                  | 佛間板子片手比丘 性輝 |
| 彩色大施主 通政 義堅  | 通政大夫 道鑑                 | 供養主 尙洽      |
| 嘉善 尙元        | 黃金大施主 凌虛堂義天             | 別座 通政大夫 竺印  |
| 供養大施主 通政 惠雄  | 嘉善大夫中樞府事 姜起仁            | 其時僧統嘉善 處豈   |
| 通政 衍明        | 徐召史 保休                  | 首僧比丘 杜英     |
| 嘉善 崔武金 兩主    | 通政大夫 印悟                 | 三補比丘 廣察     |
| 布施大施主 崔甲辰 兩主 | 嘉善大夫 覺連                 | 持事嘉善大夫 德聰   |
| 嘉善 李義善 兩主    | 嘉善大夫 戒認                 | 東邊領將 翠雲     |
| 嘉善 金浚龍       | 通政大夫 張弼華                | 西邊領將 清益     |
| 朴太碩 兩主       | 朴順傑 兩主                  | 當今寺中秩       |
| 證師大德 宗遠 比丘   | <b>證師名現道人</b> <b>修淨</b> | 山中大德 海天 比丘  |
| 持香 道聖 比丘     | 持殿比丘 卓敏                 | 前判事 宗海      |
| 畫員 通政 性澄     | <b>造工比丘</b> <b>夏天</b>   | 嘉善大夫 知軒     |
| 時僧統 比丘 漢暎    | 別座 弘祐 <b>碩俊</b>         | 前僧統 通政 致悅   |
| 德聰 比丘 六清     | 化主 雪梅 <b>成濬</b>         | 前僧統 嘉善 哲環   |
| 三綱 比丘 性安     | 供養主 在祐 <b>宗慧</b>        | 前僧統 判事 致雲   |
| 在潤 比丘 廣益     | 時僧統 嘉善 德聰               | 時僧統 嘉善 思律   |
| 最閑 比丘 印行     | 首僧 德宗                   | 首僧 戒察       |

|      |       |       |       |       |    |
|------|-------|-------|-------|-------|----|
| 祖禪   | 比丘 世冠 | 三綱 三補 | 淨浩    | 三綱 三補 | 坦璿 |
|      | 供養主時律 | 持事    | 勝惠    | 持事    | 最秀 |
| 別座通政 | 信楚    | 功德刻字  | 義成 比丘 |       |    |
| 化主大德 | 海清    |       |       |       |    |

위의 현관을 번역해 보면, “강희 56년 정유<sup>5)</sup> 봄에 갑작스런 화재가 일어나 동상방에서 좌우의 뜻을 받들어 재물과 곡속을 모으고, 별좌인 축인(竺印)과 월(越)이 이듬해인 경자년<sup>6)</sup> 봄에 이곳에 법당 세 칸을 완성하였다. 대웅보전과 더불어 위로는 열숙(列宿)과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영기를 머금었는데, 북으로는 황악(黃岳)을 접하고 남으로는 가야에 닿았으며, 그 동서의 모든 봉우리와 숲과 계곡의 기묘한 경치(奇勝)가 구태(具忭)함이 불가(不可)하였다. 그 사시의 풍경을 말하자면, 진달래꽃의 난만 장렬함이 산악의 기색(奇色)과 꿩꼬리[黃鳥]의 곱디고운 맑은 소리가 어우러짐이 가승(佳勝)이며, 비단 같은 언덕과 단풍 숲의 그림은 천산(千山)의 가을 모습이며, 눈 덮인 언덕과 그윽한 산골짜기의 소리와 만 가지 나무의 경설(瓊屑), 이 모든 것이 이 당우(堂宇)의 경관이다.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탕불(幀佛)하고 등상에 단청[等象丹青]하였다. 셋째는 대덕 해청장로와 별인 신초가 재물을 모으기를 발원한 것을 받아들여서, 강희 임인년<sup>7)</sup> 천중절에 영산회 1부(部)와 팔상탱 4축(軸)을 그려서 완성하였으므로 단청이 이루어졌다. 또 이름이 설매스님이라고도 하고 운수도인이라는 이가 있어서, 말아서 권한 지 해가 다하지 않아서 금액을 가득 채웠으므로, **별좌 홍우(弘祐)와 더불어 이름난 증명법사와 좋은 화공을 삼가 청하여** **雍正 8년 경술년<sup>8)</sup> 맹하에** **여래금상(如來金相) 삼존(三尊)을 연화대 위에 조성·봉안하였으며,** 인하여 낙성한 會殿 내의 장엄이 갖추어졌다. 전각에 오르면 아름다운 색(色)은 사람을 감싸 돌고, 청광은 눈을 빼앗으니 명경(鳴磬)하고 예불하였다. 몸의 자세는 표연하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 있는 것이 변화하여 도리천궁에 오르는 것과 같았다. 이 때문에 시인(詩人)이 차방(此方)에 이르러서는 시를 짓고 즐거워하며, 도객(道客)이 등림하여 방도하니 생각이 청결하여졌다. 만약 영복자(永福者)나 축수자(祝壽者)이거나 완경자(翫景者)이거나 심진자(尋眞者)라면, 받들어 이어서 예를 올려 못 사람들이 귀의하고 신앙함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 것이다.

4) 김천 봉곡사에 소장된 [靈山殿翔建幀佛等象丹靑記]의 석문은 필자가, 번역은 대휴사 수정 총무 스님이 하였다.

5) 康熙 56年 丁酉는 1717년이다.

6) 庚子는 康熙 59年인 1720년이다.

7) 壬寅은 康熙 61年인 1722년이다.

8) 雍正 8年 庚戌은 1730년이다.

승려는 달 아래 한가한 종고소리에 귀의하며, 분향하고 묵좌하여 세속의 가르침을 버렸으니, 이것이 선가(禪家)의 뛰어남이로다. 또 시중(寺中)의 경영지역(經營之役)도 훌륭하고 훌륭하니, 청장노(淸長老)와 매도인(梅道人)에게 조성의 공이 있으니 가히 실 만하며<sup>9)</sup>, 후인들은 두 스님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자들로 뜻을 이어 중수하여 전각과 부처님의 훼손을 막으리라. 옹정 9년<sup>10)</sup> 6월 하순<sup>11)</sup>에 소납(小納) 산인(山人) 세백(世伯)이 쓰다.”이다.

따라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은 1730년 음력 4월 김천 봉곡사 영산전에 봉안한 석가삼존불좌상 가운데 협시보살로, 조각승[造工比丘] 하천(夏天), 석준(碩俊), 성찬(成澣), 종혜(宗慧)가 제작하였다. 당시 영산전에 봉안한 불상이라 주불은 석가모니이고, 협시보살은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다. 따라서 현재 대휴사 보살상은 손의 위치로 보아 석가의 좌협시보살인 미륵보살로 볼 수 있다. 현판에는 불화와 불상 및 전각 조성과 관련된 인명이 세 단으로 쓰여 있고, 중간 부분에 불상 제작에 관한 연화질과 시주질이 언급되어 있다. 당시 증명은 수정(修淨)<sup>12)</sup>, 지전(持殿)은 탁민(卓敏), 별좌(別座), 홍우(弘祐), 화주(化主), 설매(雪梅), 공양주(供養主) 덕종(德宗), 삼보(三補) 정호(淨浩), 지사(持事) 승혜(勝惠)가 참여하였다.

#### IV. 조각승 하천의 활동과 그 계보 및 불상 양식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하천의 생애와 불상 양식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sup>13)</sup>, 하천과 관련하여 새로 발견된 조성발원문이나 사적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조각승 하천의 활동

조각승 하천에 대해 조사된 문헌기록은 13건으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10건과 사적기 내용 3건이 있다<표 1>.

<sup>9)</sup> 淸長老는 化主로 참여한 海淸스님이고, 梅道人은 化主로 참여한 雪梅스님이다.  
<sup>10)</sup> 雍正 9年는 1731년이다.  
<sup>11)</sup> 白猪林鍾下日은 6월이다.  
<sup>12)</sup> 수정스님에 관한 문헌기록은 직지성보박물관에 소장된 1735년에 만들어진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에 비구로 언급된 정도이다.  
<sup>13)</sup> 註2) 참조.

표 1. 夏天 관련 문헌기록

| 年代        | 造成地域  | 造成寺刹     | 造成内容                        | 彫刻僧   | 문헌 기록  | 奉安處와 비고                   |
|-----------|-------|----------|-----------------------------|---|--------|---------------------------|
| 1703      | 전남 구례 | 화엄사 각황전  |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가운데 석가와 관음보살상 제작 | 造釋迦 觀音像八影山沙門 色難 造多寶文殊像曹溪山沙門 沖玉 造彌陀像稜伽山沙門 一機 造普賢像 雄遠 造觀音像 秋朋 造智積像 秋平 順瑗 幸坦 勝梅 初下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融 大裕 進聰 定惠 進一 善覺 澄海 瑞行 仁陟 夏天 | 發願文    | 오진희 논문 참조                 |
| 1705 (6월) | 경남 하동 | 쌍계사 성보전  | 목조보현동자상 제작                  | 畫員 都片手通政大夫 色難 碩玄 幸坦 通政 雄遠 混平 河信 心哲 秋鵬 一機 秋平 德熙 通揖 善覺 俊玉 夏虞 麟陟 急遠 夏天   | 發願文    |                           |
| 1707      | 전남 고흥 | 능가사      | 불상 제작                       | 彫妙工 通政 色難 幸坦 通政 雄遠 一機 荷信 混平 大猷 善覺 夏天  | 事蹟記    |                           |
| 1709      | 전남 고흥 | 금탑사      | 목조보살좌상 제작                   | 造像片手 通政 色難 雄元 混平 一機 德熙 大裕 善覺 夏天 雷習 廣惠   | 發願文    | 전남 고흥 송광암 봉안              |
| 1720      | 전남 순천 | 송광사      | 사천왕상 개체                     | 畫員 一機 幸坦 碩俊 善覺 善日 夏天 得察 斗珍  | 事蹟記    |                           |
| 1722      | 전남 장흥 | 보림사      | 三尊佛像, 금강신 중수개금              | 重修金剛 畫員 夏天 佛尊 希信  | 事蹟記    |                           |
| 1724      | 전남 장흥 | 보림사      | 나한 중수                       | 畫員 夏天 弼英 得察 宗惠  | 事蹟記    |                           |
| 1726      | 전남 고흥 | 금탑사 북대암  | 목조보살좌상 제작                   | 良工 夏天   | 發願文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봉안             |
|           | 전남 고흥 | 금탑사 문수암  | 목조보살좌상 제작                   | 良工 夏天 宗惠 致俊   | 發願文    | 전남 고흥 송광암 봉안              |
| 1727      | 대구 동구 | 동화사 대웅전  | 목조삼세불좌상 제작                  | 梓匠 夏天 碩俊 得察 允清 眞華 成絜 宗惠 秋淨 宏陟   | 發願文    | 1~4월                      |
| 1730      | 경북 김천 | 봉곡사      |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제작                | 造工 夏天 碩俊 成濬 宗慧  | 發願文    | 4월, 경북 김천 대휴사 보살상 1구 봉안   |
|           | 전남 고흥 | 금탑사 극락보전 | 主佛彌陀三尊位改金重修                 | 畫員 改塗金片手 夏天 德熙 宗惠 畫成片手 鵬眼 得察 最祐 智雲 永賢   | 改金 發願文 | 8월2일                      |
|           | 경남 창녕 | 관룡사      | 목조석가여래좌상 제작                 | 首畫師 夏天 副畫師 得察 成絜 宗慧   | 發願文    | 경남 창녕 포교원 봉안 8월~11월19일 조성 |

위의 <표 1>에서 조각승 하천이 태어난 때와 승장(僧匠)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제작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단편적인 문헌기록을 통하여 활동시기와 지역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하천은 색난을 수회승으로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sup>14)</sup>, 1705년에 하동

14) 吳珍熙,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미술사』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113~138쪽.

쌍계사 목조보현동자, 1707년에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sup>15)</sup>, 1709년에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제작할 때<sup>16)</sup>, 조성발원문에 뒤쪽에 언급되어 1700년대 조각승으로서 그의 지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720년에 수화승 일기(一機)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할 때, 9명의 승려 가운데 7번째 언급되었고<sup>17)</sup>, 수화승으로 1722년에 장흥 보림사 능인전 삼존불상 개금을<sup>18)</sup>, 1724년에 장흥 보림사 나한 중수를<sup>19)</sup>, 1726년 고흥 금탑사 북대암 목조보살좌상(서울 지장암 봉안(도 12)), 과 고흥 금탑사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도 13))을<sup>20)</sup>,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sup>21)</sup> 그리고 1730년 6월에 경북 김천 봉곡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을, 8월부터 11월 19일까지 창녕 포교원 목조여래좌상을<sup>22)</sup>, 고흥 금탑사 극



도 12. 하천, 목조보살좌상, 1726년, 서울 지장암 (고흥 금탑사 북대암 조성)



도 13. 하천, 목조보살좌상, 1726년, 고흥 송광암 (고흥 금탑사 문수암 조성)

15) 『願文』, “康熙四十六年丁亥四月日敬造新塑像奉安於八影山楞伽寺大道場也…證明 行修 誦呪 清日…持殿 信益 彫妙工 通政大夫 色難 幸坦 通政大夫 雄遠 一機 荷信 混平 大猷 善覺 夏天…”

16) 造像發願文 娑婆世界勝金州海東朝鮮國全羅道興陽縣東南千燈山金塔寺…康熙四十八年四月日記…造像片手通政 色難 雄元 混平 一齊 德熙 大裕 善覺 夏天 雷習 廣惠…

17) 『曹溪山松廣寺史庫』第2目 片史 同五十九年庚子四月日四天王重修改彩證明 以濟 持殿 致淨 化主 了眼 供養主 漢陟 獲軒 畫員 一機 幸坦 混平 碩俊 善覺 善日 夏天 得察 斗珍 참조.

18) 고경 監修, 김희태 외 譯註, 『譯註 寶林寺重創記』, 장흥문화원, 2001, 71쪽에 宗耑로 읽었으나, 원문에 宗惠로 적혀 있다.

19) 고경 監修 김희태외 譯註, 앞의 책, 70~71쪽.

20) 造成發願文(동북아불교미술관 소장 복사본 참조).

21) 김미경, 앞의 논문, 269~291쪽.

22) 김창균, 『거창·창녕 포교당 성보 조사기』, 『聖寶』4,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2, 171쪽.

락보전 미타삼존을 개금·중수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이 18세기 전반에 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불상의 조성과 개금·중수를 주도하면서 경상도 지역까지 명성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은 17세기 후반에 태어나 1700년대 초에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720년대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sup>23)</sup> 그는 수화승 색난이나 일기와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 2. 하천의 조각승 계보

조각승 하천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조사된 문헌기록은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사적기로, 이 기록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작업한 스님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각승 夏天과 공동작업한 조각승

| 僧名                         | 活動年代        | 活動事項  |
|----------------------------|-------------|---|
| 弼英                         | -1715-1730- | 1715년 전남 장흥 보림사 祖師圖 조성(首書僧)<br>1718년 전남 장흥 보림사 후불도 조성(首書僧)<br>1722년 전남 장흥 보림사 三藏, 五路, 下壇 조성(首書僧)<br>1724년 전남 장흥 보림사 나한상 중수(首書僧 夏天)<br>1730년 전남 장흥 보림사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과 시왕 개채(首書僧)   |
| 得察                         | -1720-1730- |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首書僧 一機)<br>1724년 전남 장흥 보림사 나한상 중수(首書僧 夏天)<br>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전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전남 고흥 금담사 극락보전 미타삼존 개금·중수(書成片手)  |
| 碩俊<br>釋俊                   | -1706-1730- | 1706년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등 제작(首書僧 楚卞)<br>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首書僧 一機)<br>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 / 목조보살좌상 1구는 김천 대휴사 봉안)  |
| 成榮<br>性贊<br>性讚<br>成榮<br>性榮 | -1727-1777- | 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전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 / 목조보살좌상 1구는 김천 대휴사 봉안)<br>1744년 경북 예천 대곡사 釋迦牟尼와 藥師如來後佛圖 및 十王圖 조성<br>1747년 충북 보은 법주사 소조삼존불좌상 개금(首書僧 妙鏡)<br>1755년 경북 영천 은혜사 대웅전 三藏圖(首書僧 상오) 및 청도 문운사 비로전 三身佛圖과 三藏圖 조성(首書僧 任閑, 溫陽民俗博物館 소장)<br>1764년 경북 예천 대곡사 地藏圖과 甘露圖 조성(首書僧 稚湖, 圓光大博) |

23)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 養士齋, 2007.

24) 崔宣一,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14, 미술사연구회, 2000, 35~62쪽.

| 僧名       | 活動年代        | 活動事項  |
|----------|-------------|---|
|          |             | 物館 所藏)<br>1777년 전남 곡성 태안사 대웅전 釋迦如來圖, 神衆圖, 三藏圖와 명적암 神衆圖 제작(首書僧 비현과 쾌운)   |
| 宗慧<br>宗惠 | -1724-1730- | 1724년 전남 장흥 보림사 나한상 중수(首書僧 夏天)<br>1726년 전남 고흥 문수암 목조보살좌상 제작(고흥 송광암 봉안; 首書僧 夏天)<br>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br>1730년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 / 목조보살좌상 1구는 김천 대휴사 봉안)<br>1730년 전남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개금 중수(首書僧 夏天)<br>1730년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 |
| 宏陟       | -1725-1727- | 1725년 전남 순천 송광사 영산전 釋迦牟尼後佛圖와 五十殿 五十三佛圖(七位), 三十三祖師幀 조성<br>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書僧 夏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색난의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다. 그가 수화승으로 불상을 만들 때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인물은 6~7명 정도가 된다. 위의 표에서 하천과 같이 활동한 필영(弼英, -1715-1730-)은 1715년부터 1722년까지 수화승으로 보림사에서 불화(佛畵)를 그리고, 1724년에 수화승 하천과 보림사 나한상 중수한 후, 1730년에 수화승으로 보림사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과 시왕상 개채를 주도하였다.

득찰(得察 : -1720-1730-)은 1720년 수화승 일기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한 후, 1724년부터 1730년까지 수화승 하천과 같이 작업을 하고, 1730년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 개금·중수 시 조성편수(畵成片手)로 적혀있어 불상과 불화를 제작하던 僧匠으로 추정된다.

석준(碩俊, 釋俊 : -1706-1730-)은 1706년에 수화승 초변과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을 제작하고, 1720년에 수화승 일기와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하였으며, 1727년에 수화승 하천과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과 1730년에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 제작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득찰과 석준 등은 초변(楚卞), 일기보다 아래 세대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성찬(成漶, 性贊, 性讚, 成榮, 性榮 : -1727-1777-)은 수화승 하천과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1730년에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과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수화승 세관(世冠)과 1744년에 경북 예천 대곡사 석가모니후불도와 약사여래후불도 및 시왕도 일부를 그리고<sup>25)</sup>, 1747년에 수

25) 聖寶文化財研究院, 『韓國의 佛畵 8-直指寺 本寺(上)』, 1995, 259쪽; 『韓國의 佛畵 9-直指寺

화승 묘경(妙鏡)과 충북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을 개금하였다.<sup>26)</sup> 1755년에 수화승 상오와 경북 영천 은해사 대웅전 삼장도를<sup>27)</sup>, 동년 수화승 임한과 경북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를 제작하였다.<sup>28)</sup> 1764년에 수화승 치삭(稚朔)과 경북 의성 대곡사 지장도를<sup>29)</sup>, 1777년에 수화승 비현, 쾌운 등과 전남 곡성 태안사 대웅전 석가여래도, 신중도, 삼장도와 명적암 신중도를 그렸다.<sup>30)</sup>

종혜(宗慧, 宗惠 : -1724-1730-)는 수화승 하천과 1724년에 장흥 보림사 나한상 중수와 1726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1730년에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과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을 제작한 후, 전남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을 개금·중수하였다.

굉척(宏陟 : -1725-1727-)은 1725년 순천 송광사 영산전 석가모니후불도, 오십전 오십삼불도(칠위), 순천 송광사 삼십삼조사도, 오십삼불도, 팔상도, 십육나한도를 그린 불화승으로, 1727년에 하천을 수화승으로 대구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하천과 같이 활동한 덕희(德熙), 봉안(鵬眼), 최우(最祐), 지운(智雲), 영현(永賢) 등은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계산파에 속하는 불화승이다.

따라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불화승 중에는 불상 제작뿐만 아니라 개금·중수에도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18세기 중반을 넘으면서 불화승이 본격적으로 불상 제작과 개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조각승의 영역을 불화승들이 차지하게 된다.

### 3. 조각승 하천의 불상 양식

이제까지 조사된 조각승 하천이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은 4건 7점이다. 이 불상들은 1726년부터 1730년까지 4년 동안 만든 작품들이다. 우선 조각승 하천이 만든 불상은 기존 색난이 만든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였지만, 제작 시기가 한 세대 정도 늦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각승 하천과 그 스승인 색난 등이

本寺(下)』, 1995, 267쪽.

26) 造成發願文(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복사본 참조).

27) 聖寶文化財研究院, 『韓國의 佛畫 30-銀海寺 本末寺』, 2003, 219쪽.

28) 聖寶文化財研究院, 『韓國의 佛畫 21-桐華寺 本末寺(上)』, 2001, 241쪽; 『韓國의 佛畫 20-私立博物館』, 2000, 226쪽.

29) 聖寶文化財研究院, 『韓國의 佛畫 23-孤雲寺 本末寺(上)』, 2001, 212쪽.

3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著, 『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1978.

만든 불상을 비교하면서 하천 작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밝혀보겠다.

우선 하천과 색난이 제작한 불상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은 시·군에 대표적인 사찰의 중심 전각이나 부속 전각에 봉안되는 100cm를 전후한 불상을 제작한 반면, 하천이 활동한 시기에는 암자에 봉안하는 불상이 대부분이라 60cm 정도의 크기를 주로 만들었다. 이는 18세기 전반에는 전국적으로 불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암자 등에 봉안하는 불상을 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천은 1726년에 전남 고흥 금담사 북대암 목조보살좌상(서울 지장암 봉안)과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하천이 수화승으로 만든 기년명 작품은 1726년에 고흥 금담사 북대암과 문수암에 있는 목조보살좌상과 1727년에 대구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도 14). 그리고 1730년에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을 제작한 후,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靈山會上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 右補處提花羯羅菩薩 … 朝鮮國慶尙左道縣九龍山觀龍寺…首畫士 夏天 副畫士 得察 成榮 宗慧 … 雍正八年庚戌十一月十九日巳時腹藏”이다.<sup>31)</sup> 따라서 창녕 포교원 불상은 1730년에 창녕 관룡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수화사(首畫師) 夏天, 副畫師 得察, 成榮, 宗慧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 15).



도 14. 하천, 목조석가여래좌상  
1727년, 대구 동화사



도 15. 하천, 목조석가여래좌상  
1730년, 창녕 포교원  
(창녕 관룡사 조성)

31) 김창균, 앞의 논문, 171쪽.

목조석가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80cm로, 결과부좌(結跏趺坐)한 자세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오른손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채 무릎 위에 놓고 있다.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대의 안쪽의 승각기(僧脚崎)는 가슴 밑까지 올려 묶어 상단이 연판형(蓮瓣形)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색난(色難)과 楚卞이 제작한 불상이나 하천이 1727년에 대구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은 얼굴과 대의 표현 등이 비슷하다.<sup>32)</sup>

이상으로 하천이 제작한 불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천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1730년 창녕 포교원 목조여래좌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 너비가 1:0.67로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신체비례를 따르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늘어져 옷깃이 사선으로 접혀 있고, 끝자락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무릎을 덮은 대의자락은 가장 안쪽 자락이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그 뒤로 세 가닥의 주름이 표현되었다.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매 자락도 색난이 제작한 불상같이 무릎을 완전히 덮은 연판형으로 늘어져 있다. 또한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



도 16. 목조관음보살좌상, 부산 칠보사의 상단이 5겹의 연판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은 색난의 후배인 충옥(忠玉)이나 楚卞보다도 색난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더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천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무기년명 불상은 부산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이 있다(도 16).

## V. 맺음말

이상으로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살펴보았고,

<sup>32)</sup>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證明 快善 天順 弘濟·樺匠 夏天 碩俊 允清 眞華 成榮 宗惠 秋淨 宏陟·擁正五年丁未自正月至四月方畢奉安(김미경, 앞의 논문, 269~291쪽 재인용).

그 결과 1730년에 조각승 하천이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보살상을 만든 조각승 하천의 활동과 계보를 살펴본 후, 불상 양식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조성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하천은 17세기 후반에 태어나 수화승 색난과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1705년에 하동 쌍계사 목조보현동자, 1707년에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 1709년에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당시 조성발원문에 하천이 언급된 위치가 뒤쪽임을 통해 이때가 수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720년에 수화승 일기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하고, 수화승으로 1722년에 장흥 보림사 능인전 삼존불상 개금을, 1724년에 장흥 보림사 나한 중수를, 1726년에 고흥 금탑사 북대암 목조보살좌상(서울 지장암 봉안)과 문수암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을, 1727년에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 그 후 하천은 1730년 6월에 경북 김천 봉곡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좌상(목조보살좌상 1구 대휴사 소장)을, 8월부터 11월 19일까지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여래좌상을, 전남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을 개금·중수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의 활동 시기는 1703년부터 1730년까지이다. 하천의 계보는 色難, 一機→夏天, 弼英, 碩俊→成濼, 宗慧, 宏陟 등으로 이어지는 18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계보에 속한다.

조각승 하천이 1730년에 창녕 포교원 목조불좌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 너비가 1:0.67로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의 신체비율을 따르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늘어져 옷깃이 사선으로 접혀 있고, 끝자락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무릎을 덮은 대의자락은 가장 안쪽 자락이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그 뒤로 세 가닥의 주름이 표현되었다.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매 자락도 색난이 제작한 불상같이 무릎을 완전히 蓮瓣形으로 덮고 길게 늘어져 있다. 또한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의 상단은 5겹의 연판형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하천은 색난의 후배인 충옥이나 초변보다 색난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더 계승하고 있다. 하천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무기년명 불상은 부산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이 있다.

하천의 후배와 제자로 추정되는 필영(弼英), 석준(碩俊), 成濼, 宗慧, 宏陟 등이 제작한 18세기 전반이나 중반의 기년명 불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후 그들의 활동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색난 계보의 불상의 양식적인 변천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15년 1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8일 ■

## 참고문헌

### <국내>

- 정휘헌 集錄, 『海東湖南道智異山大華嚴寺事蹟』, 『佛教學報』6,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1966.
- 한국학문헌연구소 編著, 『曹溪山松廣寺史庫』, 亞細亞文化社, 1977.
- \_\_\_\_\_, 『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1978.
- 권상노,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국립중앙박물관, 1982.
- 유용환, 『腹藏遺物の 實證的 研究-大勢至菩薩像의 腹藏과 儀軌의 比較』, 『1302年 阿彌陀腹藏物の 調査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1.
- 최인선,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創刊號, 한국문화사학회, 1994.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9-直指寺 本寺(上)』, 1995.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9-直指寺 本寺(下)』, 1995.
- 순천대학교박물관, 『迦智山 寶林寺 精密地表調査』, 1995.
- 목포대학교박물관, 『雙峰寺』, 1996.
- 최선일, 『雙峰寺의 遺蹟과 遺物』, 『雙峰寺』, 木浦大學校博物館, 1996.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1999.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20-私立博物館』, 2000.
- \_\_\_\_\_, 『韓國의 佛畫 21-桐華寺 本末寺(上)』, 2000.
- 임석진 原著/고경 改正編輯, 『曹溪山 大乘禪宗 松廣寺』, 松廣寺, 2001.
-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桐裏山 泰安寺』, 2001.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23-孤雲寺 本末寺(上)』, 2001.
- 『長興府迦智山寶林寺法堂各殿閣僚舍重創燔瓦年月與工師化主別座等 芳啣記錄』(고경 감수, 김희태 외 譯註,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2001).
-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미술사연구회, 2000.
- 김창균, 『거창·창녕 포교당 정보조사기』, 『聖寶』4, 大韓佛教曹溪宗 聖寶保

- 存委員會, 2002.
- 최선일, 『日本 高麗美術館 所藏 朝鮮後期 木造三尊佛龕』,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 국립광주박물관, 『谷城郡의 佛敎遺蹟』, 2003.
- 성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 30-은해사』, 2003.
- 장희정,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일지사, 2003.
-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한국불교문화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봉은사의 불교문화』 발표 논문집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
- 최선일,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조각승 進悅』, 『美術史學研究』 244, 한국미술사학회, 2004.
- 김미경, 『八公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불교미술사학』 3, 불교미술사학회, 2005.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06.
- 최선일,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研究』, 『美術資料』 75, 국립중앙박물관, 2006.
- 오진희,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 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이분희,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2007.
- 문명대, 『상정계 목 불상조각(尙淨系 木 佛像彫刻)의 연구』, 『강좌 미술사』 2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 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 ~佛敎彫塑』, 養士齋, 2007.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II』, 2008.
-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繪畫』, 養士齋, 2008.
- 김춘실, 『충청북도 제천·단양 지역의 朝鮮 後期 木造佛像』, 『미술사연구』 23, 미술사연구회, 2009.
- 김희태, 『장흥 보림사 중창기』의 고찰, 『역사학연구』 36, 湖南史學會, 2009.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2009.

- 최선일,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261, 한국 미술사학회, 2009.
- 고경·최선일 엮음,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 養士齋, 2010.
- 김희경, 『조선후기 彫刻僧 色難의 十六羅漢像 研究-전남 고흥 능가사를 중심으로』, 『禪文化研究』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Ⅱ』, 2010.
- 오진희, 『彫刻僧 夏天의 佛像彫刻 研究』, 『강좌 미술사』 34, 한국불교미술사 학회, 2010.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Ⅲ』, 2011.

Abstract

## A study on construction time and the sculptor for Wooden seated Bodhisattva of Gimchoen Daehyusa

Choi, Sun-II

This paper is a study about monk sculptor Hacheon, who made Wooden seated Bodhisattva enshrined main hall of Gimcheon Daehyusa at Gyeongsangbukdo province. A dedicative inscription “Juengmyeong(證明) Sujeong(修淨)” on the sealed Yellow Fabric of Sealing Huryeongtong (黃綃幅子) and “Bonggoksa(鳳谷寺)” on the Sutra installed inside a statue were revealed. Bonggoksa has a wooden tablet written a inscription which shows monk sculptor Hacheon(夏天), Seokjun(碩俊) made a triad seated Buddha and Arahant.

Monk sculptor Hacheon, born in late 17<sup>th</sup> century, participated in various Buddhist sculptures rendering projects. Hacheon and leader sculptor Seaknan(色難) made Wooden seated triad Buddha and four Bodhisattva enshrined at Gurye Hwaeomsa Gakhwangjeon in 1703, Wooden Samantabhadra at Hadong Ssanggyesa in 1706, molding clay of Buddha at Jeonnam Goheung Neunggasa in 1707, Wooden Bodhisattva at Jeonnam Goheung Geumtapsa in 1709. Following leader sculptor Ilgi(一機), he participated paint mending project at Suncheon Songgwangsa in 1720. Then he took charge of gold mending project at Jaheung Borimsa Neunginjeon in 1722 and repairing Arhats at Jaheung Borimsa. Also, as a leader sculptor, he made two Wooden seated Bodhisattva at Goheung Geumtapsa Bukdaeam(now enshrining at Seoul Jijangam) and Munsuam (now enshrining Goheung Songgwangam) in 1726, Wooden seat triad Buddha at Deagu Donghwasu Deawungjeon in 1727. Furthermore, he produced Wooden seat triad Buddha at Gimcheon Bonggoksa in 1730(now one Bodhisattva enshrining at Gimcheon Daehyusa), Wooden seated

Buddha at Chnagnyeong Dharma Propagation Center(布教堂) in 1727 and took charge of repairing triad Amitabha . His activity period turned out so far is from in 1703 to in 1730.

Wood seated Bodhisattva, whose height is 76.0cm and grafted mid-size statue. Its upper body is slightly bended forward. This Bodhisattva has an oval face, slightly open and slant upward eyes, triangular shape nose, and quiet smile. It has typical features of made late Joseon dyanasty Bodhisattva, but narrow shoulder for head and high knees for body. The shape of garment drapery is simplified by several lines. The features of Garment drapery like this sculptor is similar with buddha sculptor made by monk sculptor Saeknan working in late 17th century.

For this paper, I can present that Hacheon belonged to monk sculpture school's pedigree: Saeknan(色難), Ilgi(一機) → Hacheon(夏天), Pilyeong(弼英), Seokjun(碩俊), Seongchan(成濼), Jonghye(宗慧), Geongcheok(宏陟).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Monk-sculptor, HaCheon, Dedicative Inscription, Dahusa

